

'말리나'가 말레이시아에서 오푸스데이의 가족적 분위기를 키우는 누메라리아 아육실리 아르입니다.

"친구들이 성찬례를 받는 것을 보는 것이 제가 성찬례를 받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."

2025-2-26

'말리나'가 말레시아에서 오푸스데이의 가족적 분위기를 키우는 누메라리아 아욱실리아르입니다.

"친구들이 성찬례를 받는 것을 보는 것이 제가 성찬례를 받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."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
from <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malrinaga-malresiaeseo-opuseudeiyigajogjeog-hwangyeongeul-kiuneun-numeraria-augsilriareuibnida/> (2026-1-29)